

종이 소비량과 문화의 척도

최승범

전북대 교수·국문학

누구의 말이었던가. “한 나라의 종이 소비량은 그 나라의 문화척도가 된다”고 했다. 40여년 전, 이 말을 접했을 때 크게 공감하였다. 당시로서야 종이 자체도 품귀했고, 책의 출판이란 것도 ‘가뭄에 콩 나듯’ 한 꼴이었다. 주말이면 찾아간 서점에서 그때마다 신간을 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책을 구 하자면 차라리 고서점을 도는 편이 나왔다. 무엇인가 한 두 권은 들고 나올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종이소비량과 문화척도의 비례론이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1950년대 중반이었다. 목포에서 간행된 《호남11인집》에서 가람(李秉岐)의 수필 한 편을 대할 수 있었다. 제목은 〈시의 진리〉. 그 가운데 다음 한 대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국가의 산물로도 너무 과잉한 생산은 도리어 그 경제를 곤란케 하고 망국케 할 것이다.” “시도 시집의 출판으로만 좌우할 건 아니다. 비록 호화관일망정 그 자체가 허무하다면 그는 개똥을 썬 비단보자기에 불과할 것이다.” 저때의 값지 못한 소견으로는 내용보다는 우선 읽을 수 있는 신간 시집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대학 강의를 받으면서도 참고서적은커녕 교재도 없이 노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일이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지난해의 《한국출판연감》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출판된 책의 종류는 2만7천4백 7종에 이르고 있다. 만화책을 제외한 숫자다. 월 평균 2천4백종 가까운 책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 이 뿐인가, 연감에 오르지 않은 각 기관이나 지방에서 나온 책종은 또 얼마일 것인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기증받은 시집의 수만도 1백29권이였다. 매달 10여권의 시집을 앉아서 받아보았던 것이 다.

이건 즐거운 일이다. 사실 책 선물처럼 기쁜 선물이 어디 있던가.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책 선물 같은 것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른바 식자인(識字人)이라면 책 선물을 싫다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서점에 들러서도 양서(良書)·선서(善書)를 들추어냈을 때의 기쁨은 크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때로 가람의 말씀이 떠오르곤 한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위항시인 임광택(林光澤)의 시 한 수가 겹쳐서 따라들기도 한다. 시제는 〈집간계(集刊戒)〉, 곧 문집 발간을 삼가라는 것이다. 말씨가 좀 과하다 싶지만 몇 줄을 옮겨본다. “출간한 책들을 친구에게 돌리며/사장(詞章)이 아름답다 허풍을 치네/보는 사람은 한편을 채 읽지 못하고/찢어서 도배지로 쓰고 있네/불후의 명문은 어디 갔는가/도리어 침 뱉고 욕을 하거나/속된 무리들은 탓할 것이 없지만/알 만한 사람들은 마땅히 삼가야 할 일일레.”

이 오언고시 〈집간계〉를 《풍요삼선(風謠三選)》에서 처음 대했을 때 자책의 마음이 앞섰다. 그동안 명색 시·수필집이라고 낸 줄저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치기와 속기가 앞섰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이라고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덜린 것은 아니다. 그때마다 가람의 말씀이나 임광택의 시로 하여 자제하게 된다. 오직 책을 내기에 앞서 거기에 담길 내용에 최선을 다하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디스켓이네 인터넷이네 하여 종이소비량과 문화척도도 꼭 등식으로 놓을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출판과 책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한, 저자·출판사·독자는 다같이 종이에 담기는 내용의 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책이 천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표지 2 바위에 새긴 선사인들의 정신세계
한국역사민속학회 위음 〈한국의 암각화〉

저자 초대 3 《통일시대의 북한학》 펴낸 강정구 교수

기획 취재 4 신홍출판사 도전으로 문학출판계 새 그림

5 중견작가들이 보내는 깊고 묵직한 메시지

6 새 옷 갈아입는 시집 시리즈들

7 문학계 변화로 넓어진 문예지 그릇

특집 앙케트 8 하반기 출간계획을 듣는다
28개 출판사의 출판예고

포럼 15 ‘한국출판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출판 포럼

출판 화제 16 책을 통해본 풀뿌리 민주주의의 1년

17 우리 교육의 회복을 위한 밑거름

책 읽는 사람 18 ‘따로 또 함께’하는 우리 곁의 책 - 정진국
③ 저녁식사 전의 책 뒤적이기

책과 영상 20 죽음 속에 있는 삶의 메시지

책갈피 산책 19 《닥터 엘리스 해밀턴》을 읽고 - 나해철

21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을 읽고 - 최중고

해외신간 리뷰 22 이야기꾼이 풀어내는 진화론의 매력 - 민찬홍
대니얼 더넷 〈다윈의 위험한 생각〉

재미있는 기획산책 23 살아있는 자연을 한눈에 펼친다 - 장익순

확대 서평 23 아직 대작을 기다리는 ‘한국전쟁’ - 라종일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서평 25 최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 김학성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 우명동

26 철학연구회 〈해방 50년의 한국철학〉 - 송상용

임흥빈 〈근대적 이성과 해결철학〉 - 최신한

27 로이드 〈그리스 과학사상사〉 - 박희영

이 책 그 사람 28 〈나는 중고차 사서 500만원 벌었다〉 펴낸 박재홍씨
〈꿈꾸는 낙타〉 펴낸 김우룡씨

29 〈호모 토일렛〉 펴낸 이상정씨

〈조선총독부, 그 청사건립의 이야기〉 펴낸 허영섭씨

새책 흐름 30 정교한 정보 담은 영화책 활발·외 / 예술·어린이

32 새책 속으로

3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환

표지 사진 / 울주 천전리 암각화(한길사제공)